

17·18세기 王世子 教育課程 연구*

김 은 정**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왕세자 進講冊子の 정비 |
| II. 조선시대 교육과정의 일반적 양상 | 1. 初學 教材의 체계화 |
| 1. 性理學的 人性 涵養의 교육과정 | 2. 『小學』 연구 성과의 반영 |
| 2. 教材 중심의 교육과정 | V. 맺음말 |
| III. 왕세자 人性教育의 실상 | |
| 1. 스승의 조기 선발 | |
| 2. 會講朝講의 行禮 | |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왕세자 교육 변화의 실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임란·병란 이후 급변한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 전반적인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일어난 왕세자 교육의 변화를 살폈다. 특히 왕세자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진강책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왕세자 교육은 성리학적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성리학의 목표가 인성 함양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역시 전인적 인격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주자가 제시한 소학-대학 연계의 교육과정은 교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몽기에 『小學』을 학습하고, 성인이 된 뒤에는 『大學』을 학습하며, 기타 四書와 史書를 익히도록 되어 있다.

왕세자 역시 성리학적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았다.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師傅賓客을 선발하여 스승으로 삼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교육이 궁료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사부빈객은 會講과 朝講에 참여하여 왕세자 교육의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세종) 조교수 / eunsiro@hanmail.net

내용을 점검하였다. 왕세자는 사부빈객과의 相見禮 및 會講禮·朝講禮 등의 行禮를 통해 겸양하는 예절과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익혔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스승의 선발 시점이 점차 빨라지게 된다. 인성 교육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왕세자는 성리학의 교육과정에서 정해진바 교재를 차례로 학습하는 것이 규례였다. 그런데 본격적인 『소학』 학습에 앞서서 初學 교재를 통해 한자를 학습하고 성리학적 기본 이념을 배우기도 하였다. 특히 『訓蒙字會』, 『童蒙先翫』과 같이 조선에서 편찬된 서적도 포함된다. 『소학』은 17세기 초반까지는 『小學集說』과 이를 저본으로 한 『소학언해』가 강학교재로 사용되다가 17세기 후반에는 李珥가 편찬한 『小學集註』와 이를 저본으로 한 새로운 언해서가 왕세자 강학교재로 대치된다. 왕세자 교육에 당시 조선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주제어】 왕세자 교육과정, 人性教育, 教材 중심, 스승, 師傅賓客, 會講禮·朝講禮, 初學教材, 『小學』

I. 서론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인간상 완성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성리학적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것은 교육 대상이 사대부 등 지배층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백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이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현재의 통치자인 왕과 미래의 통치자인 왕세자에게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일반 서민에서 군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목표 하에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왕을 위한 經筵과 왕세자를 위한 書筵을 교육장치로 두고 학자와 신하들이 지속적으로 통치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經筵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교육적인 행위 외에도 왕과 신하

의 정치 이념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적인 교육은 차기 왕위계승자인 왕세자의 서연에 집중되었다.¹⁾ 간헐적으로 왕세자로 책봉되기 전인 元子나, 차차기 왕위계승자인 王世孫을 위해서 별도의 관청을 가설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왕실교육의 중심 대상은 왕세자이었으며, 특히 교육적 효과가 높은 童蒙期(8-15세)에 집중되었다.

초기의 왕실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임금을 중심으로 한 사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王世子 교육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었다.³⁾ 이후 왕세자 관련기록 등을 통해 왕실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찰한 연구결과가 있어서 왕세자 교육의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⁴⁾ 또한 『동궁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왕세자 실제 학습 현장을 다룬 내용이 보고되기도 하였다.⁵⁾

-
- 1) 왕세자 교육 및 왕실 교육의 전반적 양상은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과 육수화, 『조선후기 왕실교육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를 참조할 수 있다.
 - 2) 조선왕실의 초기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육수화, 「조선왕실의 초기교육 기관 연구」, 『한국교육사학』29, 한국교육사학회, 2007; 「조선시대 왕실의 유아교육」, 『東洋古典研究』32, 동양고전학회, 2008; 김은정, 「侍講院 부설기관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실교육」, 『한국문화』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3) 왕실교육과 관련된 논문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이원호, 「조선왕조의 세자교육」, 『교육학연구』9권2호, 한국교육학회, 1971; 이기순, 「시강원을 통해본 인조·효종조의 서인세력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석사논문, 1984; 이석규, 「조선초기 서연연구」, 『역사학보』110, 역사학회, 1986; 정옥자, 「홍선대원군의 왕실교육 강화」, 『한국사연구』99, 한국사연구회 1997;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18, 서지학회, 1999; 한용진, 「서연의 교육이념과 성격」, 『교육문제연구』1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8;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3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 4) 육수화의 일련의 논문과 이를 정리한 박사논문(2007)이 대표적인 예이다.
 - 5) 신영주, 「전통시대 한문 학습법에 관한 일고찰-영조의 장헌세자 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김은정, 「서연을 통해 본 왕세자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17세기 『동궁일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153호, 한국어문학회, 2012.

그 중에는 왕세자 교육과정을 다룬 논문이 있기도 하다.⁶⁾ 그러나 왕세자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모습은 아직 모호한 면이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이론적인 배경과, 구체적인 왕세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임란·병란 이후 급변한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 전반적인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일어난 왕세자 교육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儒敎立國의 가치를 내건 당대 정치사상이 왕세자 교육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17·18세기에 왕세자 교육과정의 변화된 모습과 실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II. 조선시대 교육과정의 일반적 양상

1. 性理學的 人性 涵養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란 학업 활동을 위한 계획과 가르칠 내용에 대한 체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성립된다. 교육이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체계적으로 행해진다면 곧 교육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정비되기 전인 전통시대 교육에서도 일정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이 있었다. 儒敎立國의 이념으로 세워진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이상을 내재화하는 것을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고,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性]과 원리[理]를 탐구하는 학문이

6) 옥수화, 「朝鮮時代 世子侍講院의 敎育課程」, 『장서각』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다. 그러나 성리학의 탐구 대상은 인간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의 본성에서 출발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자연과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하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이다. 즉 仁과 義와 같은 본성을 갈고 닦는 학문이면서, 格物致知의 방법론을 통해 사회, 정치, 자연, 예술에 이르기까지 탐구의 범위로 삼는다는 것이다.⁷⁾

그런데 성리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교육이론’ 또는 ‘교육과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의 요체는 ‘교과공부를 통한 심성 함양’을 이루어 聖人の 경지에 이르는 것이므로⁸⁾ ‘교과공부’가 성리학의 중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은 심성을 함양하여 인간 본연의 품성을 이상적인 상태로 끌어 올린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심성을 함양하기만 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결된 인성을 갖출 수 있다는 성리학적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교육과정은 性理學적 人性 涵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육내용을 포괄하게 된다. 修己治人이라는 교육 목표가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속되었던 만큼, 조선의 교육과정은 전시기에 걸쳐 일관된 흐름을 띠고 구성된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자의 교육과정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조선전기의 성균관 <學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章句, 文義’가 아니라 ‘義理, 講明’이 독서의 기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⁹⁾ ‘義理’에 대한 강조는 성리학적 도덕 함양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7) 이원희, 「인성 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 탐색 : 성리학이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가?」, 『통합교육과정연구』제8권 4호,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4, p.75.

8) 진영석, 「교육과정 연구의 대안적 관점 : 성리학의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p.12.

9) 박종배, 「조선시대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p.4.

설정하였음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해설하면 의리를 위시한 도덕적 함양을 목적을 삼았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敎材 중심의 교육과정

성리학 교육과정은 특정한 학문(discipline)이 아니라 교재(texts)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¹⁰⁾ 대부분의 아동들은 교재 단위로 학습체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교재 자체가 교육과정을 대변한다는 것은 교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지식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人性을 연구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아동은 교재를 학습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념과 관계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인성 함양의 방법을 탐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적 생활 윤리를 체득하는 것이 된다.

교재 중심의 성리학 교육과정은 주자에 의해 마련되었다. 주자는 말년에 ‘小學-大學’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 교육과정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 이론은 『소학』과 『대학』이라는 중심 교재로 형성된 것이다. 주자는 소학 교육을 위해 전통의 아동 교육 관련 언설들을 모아서 『소학』을 편집하고, 대학 교육을 위해 『대학』의 三綱領八條目을 재해석함으로써 소학-대학 교육과정 체계를 완비했던 것이다.¹¹⁾ 이 교육과정 이론은 후에 주자의 성리학을 계승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지속적으로 성리학적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한편 주자는 ‘소학-대학’ 두 단계 이후의 교과 내용과 순서도 자세히 제시해 놓았는데, 이때도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명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주자는 기존의 경전 『논어』 『맹자』에 『대학』 『중용』을 첨가하여 四書를 완성하였고, 특히 읽는 순서를 『대학』→『논어』→『맹자』→『중용』

10) 박종배, 앞의 논문(2011), p.21.

11) 황금중, 「性理學에서의 小學大學 교육과정론-주자퇴계-율곡의 견해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1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p.355.

로 정하였던 것이다. 四書 이후의 학습 내용도 교재로서 제시하여, 四書를 읽은 뒤에는 五經을, 五經을 읽은 뒤에는 歷史書를 읽도록 하였다. 주자 이전에 중요 학습서였던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로 구성된 五經을 읽은 뒤 역사서를 읽도록 한 것은, 만물의 이치가 역사에 적용된 실상을 담고 있는 사서는 지나치게 방대하고 산만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개국 이후 주자의 교육이념 및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조선초의 성균관 <학령>에서 교재 중심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四書五經과 史書 중심의 새로운 교재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소학』은 동몽기에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성균관에서는 『소학』을 선행 학습서로 지정하고 있었다.¹²⁾

이러한 교육과정은 이후 이이의 『學校模範』에서 일부 보완이 되기는 하였으나,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은 일반사대에 국한하지 않고 왕실 구성원까지를 아우른다. 제왕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왕실 교육에서도 주자의 교재를 중심으로 한 ‘소학-대학’ 체계의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Ⅲ. 왕세자 人性 教育의 실상

1. 스승의 조기 선발

조선시대의 왕은 修己治人을 실천하는 선비로서 內聖外王을 구현하는 존재였다. 이상적인 군자상을 완성하여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회 전반의 체계가 성리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구동되었기 때문에 왕이 그 사유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의 위기를 초

12) 『태종실록』 1398년(태종 7) 3월 24일.

래할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중요 학자들이 왕세자 교육을 국가의 존치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성리학적 이념을 어린 시절부터 체화하도록 하였다. 이런 이유로 교육대상자가 왕위계승자이고 학부모가 군왕이어서 생기는 특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왕세자 교육 역시 일반적인 사대부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랐다.¹³⁾ 다만 왕세자는 교육목표인 도덕 함양과 이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를 받게 된다.

왕위계승자의 교육은 우선 스승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至尊의 자리에 있는 왕세자는 평소 아랫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더 많게 마련이다. 신분으로만 따진다면 존대해야 할 대상은 왕족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시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른을 공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품성을 익히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나이에 공식적인 師傅를 지정하여 엄한 훈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즉 왕세자의 교육의 시발점은 바로 師傅의 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인조대에는 차차기 왕인 元孫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원손은 8세가 되어 內侍에게 『소학』을 배우고 있었으나, 대신들이 덕망있고 품계 높은 스승에게 배워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¹⁴⁾ 내시를 통해서도 『소학』을 학습할 수 있지만,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데 있으므로 ‘덕망있고 품계가 높은 스승’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초기부터 원로대신을 왕세자의 스승인 師傅·貳師·賓客으로 임명하였다.¹⁵⁾ 스승이 정해지면 왕세자는 스승에게 師弟의 예를 다하여야 한다. 스승에게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冑官을 보내 문안하고, 사부가 卒逝한 경우는 직접 문상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왕

13) 김은정, 앞의 논문(2012).

14) 『인조실록』 1643년(인조 21) 4월 13일.

15) 사부빈객의 품계와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정1품	중1품	정2품	중2품
師 1(영의정 겸직)	貳師 1(찬성 겸직)	左賓客 1	左副賓客 1
傅 1(좌·우의정 겸직)		右賓客 1	右副賓客 1

세자는 스승과 相見禮를 행함으로써 사제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게 된다. 다음은 昭顯世子가 사부빈객 상견례를 행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1625년 5월 5일(임자) 맑음

묘시 정각에 貳師·左賓客·右賓客이 숙배한 뒤 景賢堂에서 상견례를 거행하였다. 陪從한 관리들이 東班과 西班으로 나누어 뜰 아래에 섰다. ①왕세자가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먼저 동쪽 단상에 섰다. ②이사·좌빈객·우빈객이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들어오자 ③왕세자가 揖하였다. ④이사가 먼저 계단을 오르자 왕세자가 조금 뒤에서 읍하고 인도하였다. ⑤좌빈객과 우빈객이 각각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⑥이사 이하가 堂 중앙에 서자, 왕세자가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였다. ⑦이사 이하가 두 번 답배를 하고 나갔다. 왕세자와 이사 이하가 각각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으로 내려갔다. 왕세자가 먼저 동쪽 계단의 단상에 서니, 이사 이하가 서쪽 계단을 통하여 몰려갔다. 왕세자가 다시 들어와 堂 중앙에서 서쪽을 향하고 섰다. 필선이 끊어앉아 상견례를 마쳤다고 아뢰 뒤 배종한 관리 이하 모든 관속이 의식을 마치고 나갔다.¹⁶⁾

위 기록에 따르면 상견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절차는 의미하는 바를 지닌다. ①왕세자는 동쪽, ②이사빈객은 서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왕세자가 이사빈객보다 위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③이사빈객이 들어오기 전에 계단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스승이 들어오면 맞이하여 먼저 읍하여 스승으로서 예우하였다. 이후 ④당에 오를 때 이사가 먼저 오르고 세자가 뒤이어 오른 것도 스승을 예우한 것이다. 그러나 ⑤2품의 품계인 빈객은 왕세자를 뒤이어 당에 올랐다. ⑥당의 중앙에서 왕세자가 스승에게 먼저 절하였고, ⑦이사 이하가 답배한 것 역시 사제의 위계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부빈객이 교체될 때마다 상견례는 반드시 이루어졌다.

왕세자의 사부빈객은 대체로 왕세자가 책봉례와 입학례를 올릴 8세 전후에 선발되었다.¹⁷⁾ 그러나 이보다 이른 시기에 스승을 선발할 것을

16) 『역주 소현동궁일기』1, 1625년 5월 5일, 민속원, 2007, p.91.

17) 역대 임금의 책봉 및 입학 나이와 연도

건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성종대에는 신하들이 7세가 된 원자(燕山君)가 이미 공부하기 시작하였지만 『효경』이나 『소학』과 같은 책일지라도 보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고,¹⁸⁾ 명종대에는 원자(順懷世子)가 글자를 어느 정도 익혔으므로 보도하는 재상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막 글자 읽기를 배운 어린이를 가르치는 데에 원로 학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효과, 효율을 생각하면 결코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명종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사부빈객의 지정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왕세자 책봉 전인 원자 시절에 스승을 선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자시강원 부설기관으로서 講學廳을 개설하고 보양관을 선출하는 형식을 띤다. 대표적인 것이 현종대에 있었던 원자(훗날의 肅宗)의 보양관 선발이다. 당시 원자는 5세였는데, 스승의 선발로서 원자의 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며, 첫번째 절차로서 상견례를 행하였다.¹⁹⁾ 실록 및 『숙종강학청일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원자가 輔養官 宋浚吉과 熙政堂 서쪽 별당에서 행한 상견례 구체적인 절차는 위에 살핀 것과 같다.

왕세자	책봉		입학	
	나이	연도	나이	연도
소현세자(1612~1645)	14	1625	14	1625
효종동궁(1619~1659)	27	1645	27	1645
현종동궁(1641~1674)	11	1651	13	1653
숙종동궁(1661~1720)	7	1667	9	1699
경종동궁(1688~1724)	3	1690	8	1695
영조동궁(1694~1776)	28	1721	29	1722
진종동궁(1719~1728)	7	1725	9	1727
경모궁동궁(1735~1762)	2	1736	8	1742
정조동궁(1752~1800)	8	1759	10	1761

18) 『성종실록』 1482년(성종 13) 7월 15일.

19) 『현종실록』 1665년(현종 6) 9월 3일. 『역주 숙종강학청일기』, 1665년 9월 3일, 민속원, 2008, p.59.

한편 숙종은 1690년 6월 16일에 채 두 돌이 안 된 원자를 세자(훗날의 경종)로 책봉하였다. 세자가 어린 나이로 책봉되었지만 역시 곧바로 사부빈객이 임명되고 11월 26일에 상견례가 의례대로 행해졌다.²⁰⁾ 이때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왕세자 책봉이 서둘러 행해진 것이므로, 사부빈객이 왕세자의 교육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 무관하게 사부빈객을 선발한 것이지만, 성리학적 인성의 함양이라는 교육목표 하에, 어린 시절부터 덕망 있는 원로 대신의 보양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숙종대 이후, 경종동궁과 경모궁은 각각 3세와 2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상견례를 비롯한 사부빈객에 대한 예우를 빠짐없이 행하였다. 진종동궁과 정조동궁은 보양청을 통해 교육받았기 때문에, 역시 어린 시절에 보양관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왕세자의 스승 선발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었지만,²¹⁾ 그 명분은 어린 원자에게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7세기 이후 왕세자의 스승을 조기 선발하는 것은 인성교육 강화의 측면을 갖기도 한 것이다.

2. 會講·朝講의 行禮

상견례가 세자와 사부빈객이 처음 인사한다는 절차상의 의례라면, 會講禮와 朝講禮는 사부가 세자의 수업에 참여하여 강론하는 실질적인 교육 의례였다. 회강례는 사부 이하 모든 시강원 관원이, 조강례는 이사 이하의 관원이 참석하는 예식이다. 즉 회강례와 조강례의 목적이나 절차 등은 동일하지만, 참여 관원과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사부가 임명되

20) 『경종춘궁일기』제1책, 1690년 11월 26일.

21) 조선후기에는 전대에 비해 왕세자 책봉의 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다. 주로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한 왕일수록 일찍 후계자를 가시화하여 왕 스스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왕세자 조기 책봉을 통해 당대의 최고 권력자를 스승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지 않았거나 임명되었더라도 상견례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사 이하가 참여하는 조강례를 열게 되는 것이다.

비록 영의정 등을 사부빈객으로 선발하여 왕세자의 스승으로 삼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왕세자 교육은 侍講院 소속의 輔德 이하의 宮僚들이 담당하였다. 이들 궁료는 ‘僚友’라고 하여,²²⁾ 봉우[僚屬]로서 왕세자와 더욱 가까웠다.²³⁾ 上番과 下番의 輪直으로 書筵에 입시하여 왕세자의 학습을 도왔으며, 왕세자의 비서로서 왕세자를 수행하고 보살폈다.²⁴⁾ 따라서 사부빈객은 비정기적인 회강례와 조강례로서 왕세자 교육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래 회강례에 대한 기록은 세종대에 이미 보이는데, 매일 초하루, 11일, 21일 및 경서를 처음 읽는 날에 師傅와 貳師가 회강하라는 전지가 있었다.²⁵⁾ 그 이후 회강에 대한 규식은 조금씩 변하다가 초하루와 보름에 여는 것으로 정해졌고, 다시 광해군 때는 대전예의 아침 문안과 겹치기 때문에 2일과 16일에 회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²⁶⁾ 원칙상 한 달에 2차례 회강을 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國忌日 등의 공식 행사와 세자 스스로의 건강, 임금을 비롯한 윗전의 건강 등으로 인해 자주 열리지 못하는 편이었다.

22) 『세종실록』 1438년(세종 20) 11월 23일.

23) 시강원 소속 관리의 품계와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정3품	정3품	정4품	중4품	정5품	중5품	정6품	중6품	정7품	중7품
經國大典		輔德1	弼善1		文學1		司書1		說書1	
續大典	讚善1	輔德1 兼 輔德1	進善1 弼善1		文學1 兼 文學1		司書1 兼 司書1		說書1 兼 說書1	
大典通編	讚善1 輔德1 兼 輔德1		兼 弼善1						1 諮議1	

24) 노관범, 『英祖東宮日記』로 보는 王世弟의 書筵과 微視政治, 『규장각』3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25) 『세종실록』 1427년(세종 9) 10월 14일.

26) 『광해군일기』1612년(광해군 4) 윤11월 18일.

구분	소현세자	효종동궁	현종동궁	숙종동궁	경종동궁	영조동궁	진종동궁
동궁위	1625-1645	1645-1649	1649-1659	1667-1674	1690-1720	1721-1724	1725-1728
	14-34세	27-31세	9-19세	7-14세	3-33세	28-31세	7-10세
회강례	6	0	2	0	3	1	0
조강례	35	6	29	0	0	4	0

위의 표는 『동궁일기』를 통해 본 역대 왕세자의 회강례와 조강례 횟수이다.²⁷⁾ 숙종과 진종이 회강례 등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종의 전교 때문이다. 현종은 1669년에 11세가 된 이후에 회강을 하도록 전교하였던 것이다.²⁸⁾ 회강을 열려면 왕세자의 학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기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례를 무난히 수행하고 사부 이하 10여명의 궁료들로부터 장시간 질문을 받고 대답할 만한 집중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왕세자 회강은 현종의 전교에 따라 11세 이후에 여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이 때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의례는 참석한 스승에 대한 왕세자의 예우와 배려를 드러낸다. 회강례·조강례는 ‘講’만큼 ‘禮’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실제로 회강례는 강론에 앞서 세자와 스승이 인사하는 절차로부터 시작된다. 이 의식은 상견례에 준하여 행해지는데, 왕세자는 동쪽, 사부는 서쪽에 위치하고, 사부가 진강하러 들어올 때는 세자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맞이하여 먼저 재배하여 스승으로서 예우하였다. 다만 빈객만이 참여할 때 세자는 계단 아래로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좌석에서 서서 맞이하였으며, 빈객이 먼저 왕세자에게 절하였고 왕세자는 控首하여 답배함으로써 빈객 이하는 신료로 대우하였다.²⁹⁾

특히 의례로서의 회강례 및 왕세자의 스승에 대한 예우의 실상은 『현

27) 김남기, 「동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세자의 교육- 소현동궁일기 부터 숙종춘방일기 까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22, 2009,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332.

28) 『현종실록』 1669년(현종 10) 7월 3일

29) 김종수, 「『孝宗東宮日記』를 통해 본 書筵 양상」, 『규장각』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pp.113-115.

『현종동궁일기』의 기록이 자세하다. 1649년 9세에 왕세자위에 오른 현종동궁은 매해 2-3차례의 조강례를 행하였지만 회강례는 오래도록 열지 않았다. 그러다가 1657년 10월 16일에 회강이 열리게 되는데,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회강이었기 때문에 儀註를 마련하고, 미루었던 사부빈객의 상견례를 행하였다. 세자 또한 연일 서연을 열어 회강을 대비하였다.

회강은 동궁의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時敏堂에서 거행하였다 사부빈객과 보덕 이하 궁관은 물론이고, 당시에 山林으로서 영향력이 지대하였던 찬선 宋浚吉과 진선 權認도 참여하였다.³⁰⁾ 사부 이하는 정해진 의례대로 세자와 인사하는 절차를 밟고 강론을 시작하려 하였는데, 진선 권사가 사부빈객이 왕세자에게 강론할 때 俯伏하지 않고 앉아서 강하기를 건의하였다.³¹⁾ 사부빈객은 신하가 아닌 스승으로서 왕세자를 대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세자가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여 사부빈객은 자리에 앉아 강론하게 된다.

강론은 세자가 전에 배운 내용을 背誦한 뒤 이어 師 領議政 鄭太和가 다음 구절을 진강하고, 사부빈객은 물론이고 참석한 모든 관원이 돌아가며 문의를 설명하고 세자 또한 적절한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형식을 띠었다. 이때 사부 등은 학습 내용을 일상에 실천하는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기도 한다.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고는 회강이 파하여 전원이 시민당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회강의 끝이 아니다. 이후 시민당 밖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참석자 모두에게 하사품을 나누어 주었다.³²⁾

30) 효종은 山林에서 학문을 닦은 선비를 등용하는 成均館의 祭酒·司業 등의 山林職을 적극 활용하여 경연 등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있었다.(정재훈, 『조선중기의 經筵과 帝王學- 光海君 ~ 顯宗년간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84, 역사학회, 2004, p.137) 뿐만 아니라 세자시강원의 산림직인 贊善(堂上 正三品)·進善(正四品) 諮議(正七品)등을 임명하여 세자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 산림직은 명예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때 임명된 찬선 宋浚吉, 진선 徐元履·權認 등은 서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세자 또한 극진한 예로써 대하였다.(김은정, 『『顯宗講書院日記』와 『顯宗東宮日記』 연구-왕실 교육의 실상과 변화』, 『규장각』31, 200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141-142)

31) 『역주 현종동궁일기』4, 1657년 10월 16일, 민속원, 2008, pp.302-313.

32) 회강 이후의 술자리와 하사품을 베푸는 것은 관례였지만, 이에 관한 기록은 『

集英門 밖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師 이하 兩司와 春坊 및 翊衛司가 참석하였다. 草葉盃 한 잔 외에 庭盃 다섯 잔을 마신 뒤, 사와 賓客에게 각각 표범가죽 1장을 하사하였다. 찬선에게는 草綠段과 粉紅綉 각 1단을 하사하고, 진선에게는 紅綿布와 藍紬 각 1단을 하사하였으며, 양사와 춘방에는 紅紬와 苧紬를 1단씩 하사하였다. 익위사에는 白紬를 1단씩 하사하였다. 書吏 14인과 書寫 2인에게는 모두 5개의 床과 술 3병을 주고, 각각에게 步木 1필 4승, 布 1필을 하사하였으며, 使令 16명에게는 모두 3개의 상과 술 1동이를 주고 각각에게 보목 1필을 하사하였다.³³⁾

술자리를 베풀고 하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회강에 참석한 사부빈객과 시강원 관원 모두를 위로하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와 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사부빈객에게 하사하는 표범가죽 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잔치와 상격에 소요되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회강을 자주 열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1659년에 兼讚善 宋時烈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겸찬선(송시열)이 아뢰었다.

“저하의 춘추가 이미 많아졌고 학문이 고명하시니, 조정에 있는 신료 가운데 누가 저하를 한 번 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會講이 요즈음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는데, 듣건대 음식과 賞格 등의 물건에 소요되는 비용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시행하기에 어려운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올해는 큰 침해를 만나 주상께서 스스로 御供을 줄이셨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반드시 이전의 규례를 고식적으로 지켜야할 필요가 없으니 일체를 없애고 다만 회강의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³⁴⁾

송시열은 오랫동안 회강이 거행되지 않은 이유가 음식과 상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쓸데없는 비용이 드는 절차를 없애고 회강을 거행할 것

현종동궁일기』가 유일하다.

33) 『역주 현종동궁일기』, 앞의 기사.

34) 『역주 현종동궁일기』5, 1659년 윤3월 21일, 민속원, 2008, p.180.

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세자는 그러한 절차를 없앤다면 예의에 걸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하였다. 결국 4월 2일 열린 회강에서는 참여 관원에 게 내린 상격은 생략되었고, 술자리의 규모도 줄었다.³⁵⁾

이렇듯 회강의 의례는 왕세자로 하여금 사부빈객의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기회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앞서 상견례로부터 시작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고 스승을 예우하는 의례를 몸소 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실록에 “오르내리고揖하고 겸양하는 예절을 익히는 것이고, 스승을 존대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³⁶⁾이라고 기록하였듯이, 행례 자체가 곧 왕세자의 인성 교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IV. 왕세자 進講冊子の 정비

1. 初學 교재의 체계화

성리학적 교육과정의 처음 단계는 소학 교육이다. 주로 8세 전후의 동몽기 아동이 『소학』을 학습하면서 성리학의 이론적인 토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 학습서로 분류되는 『소학』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다. 따라서 『소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자 독해력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유교 윤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였다. 따라서 『소학』을 배우기 전에 전통적으로 『千字文』과 같은 한자 학습서를 배우고, 공자와 曾子의 문답 가운데 孝와 관련된 내용을 모은 『孝經』을 읽었다.

35) 『역주 현종동궁일기』5, 1659년 4월 2일, 민속원, 2008, 193-207면. “集英門 밖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師 이하 兩司와 춘방 및 익위사가 참석하여 草葉盃 한 잔 이 외에 庭盃 다섯 잔을 마셨다. 書吏 13인과 書寫 2인에게 모두 다섯 상과 술 세 병을 주고 끝났다.”

36) 『중종실록』 1522년(중종 17) 4월 19일.

그런데 조선의 아동은 『소학』을 읽기 전에 한자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학습 교재가 모국어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자 및 한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先修書 또는 初學 교재에 해당하는 서적이 독자적으로 발달해 왔다. 즉 千字文類의 한자 학습서 외에 생활주변의 사물을 비슷한 것끼리 모은 類合字會類가 발달한 것이다. 崔世珍이 지은 『訓蒙字會』, 저자 미상의 『類合』, 柳希春이 지은 『新增類合』 등의 서적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체, 기명, 조수, 초목 등 사물의 구체적 명칭을 통한 문자 교육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³⁷⁾

실록 등을 살펴보면 『천자문』은 조선초기부터 왕세자의 교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서적에 대한 언급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은 물론이고 시강원의 『동궁일기』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8세 전후에 왕세자 책봉례와 입학례가 올려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왕세자 교육에 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시기 왕세자 주로 『소학』을 배우기 때문이다. 다만 선조가 1594년에 『新增類合』을 안으로 들이라 하고³⁸⁾ 1608년에 『신증류합』을 간행하도록 한 점,³⁹⁾ 1600년에는 『훈몽자회』를 구하고 싶다고 한 점⁴⁰⁾ 등을 미루어, 조선후기에 왕실에서 『신증유합』과 『훈몽자회』를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가 현종대에 講學廳이 설치되어 책봉 전의 원자(훗날의 숙종)를 교육하게 되면서 이러한 초학교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시 강학 교재에 대한 논의 중에 송준길은 『효경』을 강학할 것을 건의하였고, 현종은 字帙을 알기 위해 『훈몽자회』를 강학하는 것이 좋겠다

37) 김향은, 「조선시대 아동교육서를 통해 본 전통아동교육원리」, 『민족문화연구』 제3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p.406.

38) 『선조실록』 1594년(선조 27) 10월 24일. 이때 『小學集說』·『小學診解』·『周易大全』·『周易診解』·『易學啓蒙』·『孫子』·『吳子』·『黃石公三略』·『文選』·『輿地勝覽』·『大典』 등을 대전으로 드리도록 하였다.

39) 『선조실록』 1608년(선조 41) 1월 11일.

40) 『선조실록』 1600년(선조 33) 2월 3일.

고 하였다. 이에 송준길은 『효경』을 강하면서 字書도 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⁴¹⁾ 그런데 실제 강학 활동을 기록한 『숙종강학청일기』에는 『효경』을 강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²⁾ 공식적으로는 『효경』을 강의하면서 보조적으로 『훈몽자회』를 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원자는 『효경』을 다 읽은 다음에는 『동몽선습』을 읽기로 결정되었고,⁴³⁾ 왕세자로 책봉된 뒤 첫 번째 서연에서도 전에 읽던 『동몽선습』을 이어서 강하였다.⁴⁴⁾ 중종 때 朴世茂가 편찬한 『동몽선습』은 經學과 歷史 부분으로 나뉘어서, 전반부에서 五倫의 내용을 서술하고 후반부에서는 중국 및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유교의 윤리도덕과 역사를 중핵으로 하는 복합적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소학』을 배우기 전의 아동기에 경학과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후의 성리학적 소학-대학 교육체제 및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왕실에서도 『동몽선습』을 초학 교재로 삼은 것이라 하겠다.

특히 『동몽선습』에 자국의 역사가 포함되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세자는 통례상 四書를 익히면서 동시에 史書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감』 『史略』 『綱目』 『宋鑑』 등 대부분이 중국 사서였던 것이다. 이에 자국 역사가 포함된 『동몽선습』을 초학기간 동안에 학습함으로써 역사의 균형 감각을 갖게 하고자 한 의도가 읽히기도 한다. 이후 영조대에는 전대 임금의 행적을 담은 『祖鑑』과 『自省編』이 편찬되어 왕세자 교육에 활용된 것은 왕실 중심으로 자국의 역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정조대의 『羹牆錄』과 순조대의 『謨訓輯要』 등도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현종대에 『효경』과 『동몽선습』이 세자 서연에서 활용한 이후 이들 책

41) 『현종개수실록』 1665년(현종 6) 9월 5일.

42) 『역주 숙종강학청일기』 9월 5일, 민속원, 2008, p.60.

43) 『현종실록』 1666년(현종 7) 3월 25일.

44) 『역주 숙종춘방일기』 1, 1667년 2월 22일, 민속원 2008, p.147.

자가 세자의 초학 교재로 자리잡게 되어, 景宗, 眞宗, 景慕宮, 正祖 등이 『효경』과 『동몽선습』을 학습하였다. 전시기만 하더라도 왕세자 교육이 세자 책봉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현종대를 기점으로 왕세자 책봉 전의 원자 교육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후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이들 학습교재 역시 공식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교육의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여러 교육기관이 신설되는 양상을 보인다.⁴⁵⁾ 이에 따라 교재 역시 새로 개발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 서적에서 좋은 구절을 뽑아 편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숙종대에 이루어진 『孝經小學抄』가 대표적인 예이다. 숙종은 判府事 金德遠의 청을 받아들여 당시 4세인 세자(훗날 경종)을 위해 『소학』과 『효경』 가운데에서 알기 쉬운 좋은 말을 뽑아 諺書로 번역하여 保姆에게 가르치도록 시킨 것이다.⁴⁶⁾ 실제로 다음해 2월4일부터 상하번이 입시하여 『효경소학초』와 『천자문』을 가르쳤다.⁴⁷⁾

이와 비슷한 일이 영조대에도 있었는데, 보양관 李眞望이 『효경』과 『소학』을 합초한 것이 춘방에 있다는 것을 임금에게 알리자 이를 올리라고 하였다.⁴⁸⁾ 영조는 이 책을 당시 세자(경모궁)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대에 완성되었던 책이 다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문자 익히기 교재에서 자연의 이치와 법칙, 유교의 윤리와 학문, 수신과 예절 등 일상생활의 법칙과 삶의 원리를 깨우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조선시대 아동교육과정의 핵심이 유교적 질서 구축을 위한 공부라는 것을 반증한다.⁴⁹⁾

45) 김은정, 앞의 논문(2009).

46) 『숙종실록』 1691년(숙종 17) 9월 13일.

47) 『경종춘궁일기』3책, 1692년 2월 4일 기사.

48) 『영조실록』 1735년(영조 11) 11월 22일.

49) 신창호, 「동몽선습(童蒙先習)에 나타난 아동교육과정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p.29.

2. 『小學』 연구 성과의 반영

『小學』은 朱子가 제자 劉子澄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교열·加筆하여 완성한 책이다. “8세에 『小學』을 읽고 15세에 『大學』을 읽어야 한다”고 주자가 말한바, 성리학의 학문수련과정에서 四書五經 등 다른 경서들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였다. 그 내용은 瀟灑應對를 대표로 하는 생활윤리와 관계된 것이었으나, 이러한 생활윤리는 전 생애에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자의 ‘소학-대학’의 교육체계는 단계적이면서도 축적적인 성격을 지니는바, 성리학에서 『소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러나 『소학』은 주자가 말년에 성리학의 기본서로서 중국의 여러 경전과 역사서와 학자들의 글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웠다. 또한 성리학의 중요 사상과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⁵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주석서가 있었고,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한편으로 독자적인 주석서를 모색하였다.

조선이 처음 수용한 서적은 元 何士信이 편찬한 10권5책의 『小學集成』이다. 세종대에 이 책을 들여와 1427년(세종 9)에 목판, 이듬해에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明 程愈가 6권으로 편찬한 『小學集說』(1486)이 1491년(성종 22)에 들어와 퍼지게 된다. 특히 중종대를 거치면서 『소학』은 널리 보급되었는데, 『집성』과 『집설』이 주로 유통되는 가운데, 이들 책은 각각 언해본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저본이 된다. 이들 언해서는 곧바로 교육에 활용되었다.⁵¹⁾

50) 조선의 사상사와 학술사에서 『소학』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정호훈의 일련의 논문과 저서를 참조할 수 있다. 「16·7세기 『小學集註』의 成立과 刊行」, 『韓國文化』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학보』31, 고려사학회, 2008; 『조선의 『소학』 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2014.

51) 왕세자를 비롯하여 모든 선비의 經典 학습에는 반드시 언해서가 활용되었다.

16세기 후반에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李珣가 독자적으로 편찬한 주석서 『小學集註』가 나온 것이다. 6권 형식의 『집주』는 형태상 『집설』의 체재를 따르지만, 내용이 보다 잘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 간명하여 활용도가 높았다. 또한 조선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집주』는 1612년(광해군 4)에 訓練都監字로 초간되었고, 공주본(1655년)과 湖本(1663년)의 재간본이 나왔다. 이상이 사대부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1659년(효종 10)의 재간본은 왕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집주』가 임금의 관심 하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⁵²⁾ 『집주』가 점차 학술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왕실과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듯 조선에서 간행·유통되었던 『소학』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서, 조선 초기 『집성』에서 조선 중기 『집설』로 바뀌고, 다시 17세기 이후 『집주』가 유통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계에서의 『소학』 텍스트의 변화는 곧바로 왕세자 교육에 적용되었다. 대부분의 왕세자가 당대에 가장 널리 읽히던 『소학』을 교재로 삼아 학습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인 실상은 왕세자의 서연을 빠짐없이 기록한 『동궁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소현세자를 살펴보자. 소현세자는 『소학』을 14세인 1625년에 학습하게 된다.⁵³⁾ 다음으로 『소학』을 읽은 세자는 현종동궁이다. 현종은 1649년 9세에 世孫으로 책봉되어 講書院에서 『소학』을 학습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세손의 『소학』 학습은 매우 이례적으로 주석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즉 전의 소현세자와 후대 대부분의 역대 세자가 『소학』 원문만 읽은 것과 달랐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강서 시간에 배운 것은 ‘小學題

선조대에 완성된 四書諺解의 체재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동궁일기』에 시강원 관원들이 언해서가 없는 경우 진강하기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보인다. 김은정, 앞의 논문(2012), pp.398-404 참조.

52) 정호훈, 앞의 책, p.258.

53) 『역주 소현동궁일기』1, 1625년 5월 16일, 민속원, 2007, pp.95-103.

辭’ 아래의 주석 ‘饒氏曰, 小學者, 小子之學也. 題辭者, 標題書首之辭也.’ 부터였다. 이날 현종은 이 외에도 원문 ‘元亨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과 이에 대한 주석 일부까지 학습하였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강서하는 내내 이어져서 <小學書題>도 원문과 주석을 모두 읽었다. 그래서 진도가 매우 더디게 나갔다.

같은 해 인조가 승하하고 곧바로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된 이후 연 서연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지난번에 이은 <소학서제>의 원문만 읽었다. 아마도 주석을 포함하면 『소학』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문의를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 학습방법을 바꾸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소학』을 주석 없이 원문만 읽는 학습방법은 이후의 왕세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인다. 현종동궁 이후 왕세자 책봉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소학』 학습 연령 역시 낮아지면서 주석을 읽을 엄두를 못 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영조의 경우는 주석을 포함하여 『소학』을 읽었다.⁵⁴⁾ 주자가 『소학』을 읽는 기간은 성인이 되어서라면 “다만 10개월 정도의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한 것과 같이 약 1년에 걸친 학습이었다. 여기에는 주해도 포함되어 있었다.⁵⁵⁾

이렇듯 영조동궁을 제외하면 왕세자는 대체로 『소학』 원문만을 읽었으나 텍스트는 주석을 포함한 것이었다. 『집주』가 주도적인 텍스트로 자리잡은 17세기 후반의 사정을 고찰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659년(효종 10)에 『집주』가 임금의 관심 하에 간행되었음을 언급하였는데, 1667년(현종 8)에 『집주』가 세자 서연의 진강책자로 결정되었다.⁵⁶⁾ 이미 전해에 홍명하 등이 『집주』를 세자 서연에서 강독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때 홍명하는 새 언해본을 간행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⁵⁷⁾

54) 『승정원일기』 1721년(경종 1) 9월 11.

55) 『영종동궁일기』1-2, 규장각 소장본.

56) 『역주 숙종춘방일기』1, 1667년 6월 1일, 민속원, 2008, p.190.

57) 『현종실록』 1667년(현종 7) 10월 11일.

기존의 『소학언해』가 『집설』을 저본으로 하였고, 『집주』는 『집설』의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해본에는 『집주』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제 왕세자 진강책자로 『집주』가 결정된 이상 기존의 언해서를 보조교재로 삼아서는 내용이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세자 서연에서 주교재와 언해서가 합치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 언해본이 간행된 것이다.⁵⁸⁾ 그리고 숙종동궁은 새로 간행된 『집주』를 학습하였다.⁵⁹⁾

이후 『집주』는 왕세자의 정식 교재가 된다. 숙종은 세자의 학습을 위해 <어제서문>을 붙인 『어제소학』을 간행하게 하는데, 이 역시 『집주』를 저본으로 한 것이다. 영조가 기존의 『소학』 내용을 자세하게 풀이하도록 명하여 완성된 『小學訓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실제로 숙종동궁, 경종동궁, 영조동궁, 진종동궁이 읽은 『소학』의 편차는 『집주』와 일치한다.

문제는 소현세자와 현종동궁이다. <표 4>에 보듯이 『동궁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소현세자와 현종동궁이 학습한 『소학』의 편차가 『집주』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은 전시기에 크게 유행하였던 『집설』을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현종동궁이 학습한 『소학』은 총 4권의 편차를 지니는데, 여기서 4권이란 오늘날의 개념으로 4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장각에 소장된 『집설』 가운데 1629년 훈련도감자 간본이 6권 4책의 체재를 지니고 있으므로,⁶⁰⁾ 현종동궁의 『소학』이 『집설』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더욱 문제인 것은 소현세자이다. 『동궁일기』에서 소현세자가 읽은 『

-
- 58) 17세기 『소학언해』에 대해서는 김주원, 「『소학언해』연구-17세기 간본을 중심으로」, 『국어학』37, 국어학회, 2001 참조. 17세기 언해본의 『집주』와의 연관성 및 간행 과정은 정호훈의 앞의 책 pp.259-261 참조.
- 59) 『역주 숙종춘방일기』1, 1667년 7월 28일, 민속원, 2008, p.203. 다만 주해 없이 대문만 강하였다. 특히 새로 들인 『소학』의 주해의 현토를 어찌할 것인지 논의된 것으로 미루어, 아직 언해서가 완성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나타낸다.
- 60) 정호훈, 「규장각 소장 『小學』의 系統과 특징」, 『한국문화』7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p.167.

『소학』의 ‘初卷’ ‘3卷’ ‘4卷’은 확실한데, ‘2卷’이 포함한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소현세자가 본 ‘초권’의 범위에 든 내용이 『집성』과 같은 체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⁶¹⁾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각종 『소학』 편차 및 역대 왕세자가 학습한 『소학』의 편차

『소학』 본문	『소학집성』		『소학집설』		『소학집주』		소현 세자	현종 동궁	숙종 동궁	경종 동궁	영조 동궁	진종 동궁
	何士信 편찬		程愈 편찬		李珣 편찬							
권수			소학집설편목 소학집설서 소학집설범례 소학총론 소학제사 소학서제		소학편목 소학집주총목 소학집주총론 소학서제 소학제사							
立教 13장	권1	1책	권1	1책	권1		初卷	권1	권1	권1	권1	권1
父子之親	권2											
明倫 107장	君臣之義	2책	권2	1책	권2		?	권1	권2	권2	권2	권2
	夫婦之別											
	長幼之序											
	朋友之交											
統論												
敬身 46장	권4		권3	2책	권3			권3	권3	권3	홍서	
稽古 47장	立教	3책	권4	3책	권4			권2	권4	권4	권4	
	明倫											
	敬身											
	通論											
嘉言 90장	廣立教	권6	권5		권5			3卷	권3	권5	권5	권5
	廣明倫	권7										
	廣敬身	권8										
善行 81장	實立教	권9	권6	4책	권6			4卷	권4	권6	권6	권6
	實明倫											
	實敬身											
	별책 : 소학서제 소학서목록 소학서도목차 소학도 소학강령 소학제사				소학집주말, 소학발							

61) 조선에서 간행된 『집설』에는 6권본 외에 『집성』과 같은 체제를 따른 10권본이 있었다는 사실(정호훈, 앞의 책, 117면)을 상기하면 규명해야할 내용이 더욱 복잡해진다.

『소학』은 왕세자 서연에 반드시 포함되는 교재였다. 왕세자는 8세 전후에 세자로 책봉되고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는데, 성리학적 교육과정상 이 시기에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소학』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세 전후의 아동이 『소학』의 내용에 대해 학술적으로 해설한 주해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세자 서연에서 진강된 『소학』은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주해서였다. 실제 서연에서 읽히지 않는 주해서를 서연의 진강책자로 삼은 것은 『소학』이 아동만의 학습서가 아니어서, 이후의 大學 단계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조선후기 왕세자 서연에는 학계의 『소학』 연구 성과를 담은 『집주』와 이를 저본으로 한 언해서를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V. 결론

본고는 조선시대에 행해진 왕세자 교육의 실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조선시대의 일반 교육과정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동몽기 교육을 위주로 왕세자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이 주자성리학을 수용하여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던 만큼, 그 교육과정은 주자가 제시한 소학-대학이 연계되는 것이었다. 특히 주자의 교육과정은 교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몽기에 『소학』을 학습하고, 성인이 된 뒤에는 『대학』을 학습하며, 기타 四書와 史書를 익히도록 되어 있다. 왕세자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서 교육의 목표는 성리학적 이상을 구현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 교육 역시 일관된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세자 책봉 무렵에 師傅賓客을 선발하여 스승으로서 예우하도록 함으로써 성리학적 인성도야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사부빈객의 선발은 조선후기

로 갈수록 세자 또는 원자가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데, 비록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명분은 일찍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왕세자 교육의 실무는 宮僚로 불리는 시강원 관원이 담당하였지만, 사부빈객은 會講과 朝講에 참여하여 왕세자 교육의 내용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때의 行禮는 왕세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살필 수 있는 계기였으며, 강론 이후의 술자리는 師傅僚友에 대한 왕세자의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그런데 진강책자를 통한 구체적인 교육양상을 살펴보면 시대마다 조금씩 교과과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동몽기에 앞서는 조기교육이 조선후기에 이룰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동몽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조선후기에는 『동몽선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교의 기본 강령 및 우리나라와 중국 역사의 대강을 알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어린 시기의 원자에게 강학하기 위한 『효경소학초』와 같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동몽기의 핵심 교재라 할 수 있는 『소학』의 교육 역시 미묘하게 변하게 된다. 짐작하건대, 17세기 초반까지는 『소학집설』과 이를 저본으로 한 『소학언해』가 강학교재로 사용되다가 17세기 후반에는 『소학집주』와 이를 저본으로 한 새로운 『소학언해』가 왕세자 강학교재로 대치된다. 이는 『소학』이라는 동일한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서와 언해서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왕세자 교육에 당시 조선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왕세자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수할 수 없다. 반드시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세자 교육과정에 일관되게 흐르는 성리학적인 이념은 오히려 오늘날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함양을 우선시하였다는 점이 그러하다. 오늘날에도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瀟灑應對의 실천윤리를 교육의 목적으로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었으나 미

진한 점, 예를 들어 소현동궁이 학습한 『소학』의 실재와,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성동기 시절의 왕세자 교육, 四書와 史書에 대한 교육 등은 후속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參考 文獻>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역주 소현동궁일기』1-6, 민속원, 2007.
 『역주 숙종강학청일기』, 민속원, 2008.
 『역주 숙종춘방일기』1-4, 민속원, 2008.
 『역주 진종동궁일기』1-2, 민속원, 2012.
 『역주 현종동궁일기』1-5, 민속원, 2008.
 『역주 효종동궁일기』1-4, 민속원, 2008.
 『경종춘궁일기』, 규장각 소장본(奎 12833)
 『영종동궁일기』, 규장각 소장본(奎 12835)
- 김남기, 「동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세자의 교육 - 소현동궁일기부터 숙종춘방 일기까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22,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9.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 김은정, 「『顯宗講書院日記』와 『顯宗東宮日記』 연구 - 왕실 교육의 실상과 변화」, 『규장각』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_____, 「侍講院 부설기관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실교육」, 『한국문화』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_____, 「서연을 통해 본 왕세자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 - 17세기 『동궁일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15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 김종수, 「『孝宗東宮日記』를 통해 본 書筵 양상」, 『규장각』 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김주원, 「『소학연해』 연구 - 17세기 간본을 중심으로」, 『국어학』37, 국어학회, 2001.
- 김향은, 「조선시대 아동교육서를 통해 본 전통아동교육원리」, 『민족문화연구』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 노관범, 『『英祖東宮日記』로 보는 王世弟의 書筵과 微視政治』, 『규장각』 3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박중배, 「조선시대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 신영주, 「전통시대 한문 학습법에 관한 일고찰 - 영조의 장헌세자 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신창호, 「동몽선습(童蒙先習)에 나타난 아동교육과정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18, 서지학회, 1999.
- 육수화, 「朝鮮時代 世子侍講院의 教育課程」, 『장서각』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_____, 「조선왕실의 초기교육 기관 연구」, 『한국교육사학』29, 한국교육사학회, 2007.
- _____, 『조선후기 왕실교육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조선시대 왕실의 유아교육」, 『東洋古典研究』32, 동양고전학회, 2008.
- 이기순, 「시강원을 통해본 인조효종조의 서인세력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석사논문, 1984.
- 이봉규, 「涵養論과 교육과정으로 본 조선성리학의 개성」, 『퇴계학보』128, 퇴계학연구원, 2010.
- 이석규, 「조선초기 서연연구」, 『역사학보』110, 역사학회, 1986.
- 이원호, 「조선왕조의 세자교육」, 『교육학연구』 9권 2호, 한국교육학회, 1971.
- 이원희, 「인성 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 탐색 : 성리학이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가?」, 『통합교육과정연구』 제8권 4호,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4.
- 정옥자, 「홍선대원군의 왕실교육 강화」, 『한국사연구』99, 한국사연구회, 1997.
- 정재훈, 「조선중기의 經筵과 帝王學 - 光海君~顯宗년간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84, 역사학회, 2004.
- _____, 「세종의 왕자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3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 정호훈,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학보』31, 고려사학회, 2008.
- _____, 「16·7세기 『小學集註』의 成立과 刊行」, 『한국문화』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_____, 『조선의 『소학』 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2014.
- _____, 「규장각 소장 『小學』의 系統과 특징」, 『한국문화』7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 진영석, 「교육과정 연구의 대안적 관점 : 성리학의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 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 한용진, 「서연의 교육이념과 성격」, 『교육문제연구』1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8.
- 황금중, 「性理學에서의 小學大學 교육과정론 - 주자·퇴계·율곡의 견해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1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부록】 역대 왕세자의 학습교재⁶²⁾

구분	소현세자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진종	경모궁	정조
3세								효경소학초 선해	
4									효경소학초략 동몽선습
5				효경	효경소학초 전자문			소학초략	
6				동몽선습					
7				소학	효경			동몽선습	소학
8					동몽선습 소학		효경	소학 동몽선습 효경	
9			소학		삼강행실		소학	소학	대학 논어
10				통감	통감 사략		조감 동몽선습		맹자 사략
11							(홍서)	사략	
12			통감					대학 논어 통감 자성편	중용
13				대학 논어				맹자	서전 강목
14	통감 소학 성학십도			(즉위)				중용	
15					대학 논어			시전	격몽요결
16	논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서전	
17			맹자		대학 시전				맹자 사략
18	맹자		계몽		서전			소학	

62) 육수화, 앞의 논문(2004), 168면에도 왕세자 진강책자가 있는데, 본고는 『동궁 일기』를 참조하여 소현세자, 효종을 덧붙이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대학		송감			송감	
19			(즉위)		심경 대학연의			대학 논어	
20	중용 통감							맹자	
21					근사록			강목	
22									
23	시전				논어 강목				
24								중용 주역	
25					맹자				역학계몽
26	서전				중용 서전				(즉위)
27		대학 대학혹문							
28		대학연의 논어				소학 강목		(홍서)	
29						대학 논어			
30	근사록	맹자							
31		중용			주문초선	(즉위)			
32		(즉위)							
33					(즉위)				
34	(홍서)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curriculum of the Crown Prince in 17·18th Century Joseon Dynasty / Kim Eun-jeong**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theory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Joseon Dynasty and examines the Crown Prince education curriculum focusing on Dongmong(童蒙) period. Because the goal of the Confucianism is to cultivate human nature, the curriculum was for the perfection of the holistic personality. In particular, the curriculum of the Sohak(小學)-Daehak(大學)-linked curriculum proposed by the Zhu-Xi(朱子) is composed of textbooks, and it is taught Sohak(小學, text for child) in Dongmong period, and Daehak(大學, text for adult) is learned after becoming an adult, and other the Four Chinese Classics[四書] and history books are learned.

The Crown Prince was also educated on the basis of the ideology of ethical education. Particularly, for the personality education, several prime ministers were selected as the teachers of Crown Prince, Sabu-fellow[師傅賓客]. The Sabu-fellow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of lecture meeting and checked the contents of the prince's education. The prince has learned to respect the courtesy and the master by humiliating through the ceremonies such as the lecture meeting.

It was the ordinance of the Crown Prince to study the textbooks set forth in the curriculum of neo-Confucianism. However, prior to the study of Sohak(小學), The Crown Prince also learned the Chinese character through basic textbooks and learned the basic ideology of neo-Confucianism. In particular, the books compiled in the Joseon Dynasty are included as well, such as Hunmongjahoi(訓蒙字會) and Dongmongsunseub(童蒙先習). In

* Assistant professor, Hongik University(Sejong) / eunsiro@hanmail.net

early 17th century, Sohakjibsul(小學集說) was used as a lecture book.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Sohakjibju(小學集註) which was compiled by Lee-Yi[李珥], and the new Korean Annotation. It is replaced by the text of the Crown Prince lecture. The royal priesthood education reflected the research results of the Chosun academy at the time.

【Key words】 Crown Prince's education curriculum, personality education, textbook-centered, Sabu-fellow[師傅賓客], ceremony of lecture meeting, basic textbooks, Sohak(小學)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19일